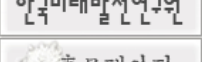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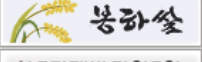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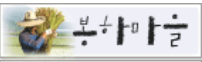


ID저장
로그인
회원가입 | ID/PW 찾기

노무현이야기

- ▶ 걸어온 길
- ▶ 말과 글
- ▶ 함께 생각해봅시다
- ▶ 추모게시판
- ▶ 좋은글과 영상



▶ 말과 글

토론마당 하나 소개합니다.

조회수 : 26684

등록일 : 2009.03.07 09:46

아침에 '다음'에서 토론마당 하나를 보았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급여 수준 비교에 관한 논쟁인데요. 아주 냉정하고 모범적인 토론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하나의 본보기가 될 만하다 싶어서 소개를 해봅니다.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사실에 관하여 사실과 자료를 가지고 토론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쉬운 것은 보는 사람이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큼 명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글을 읽는 사람으로서의 메모를 해 가면서 정리를 해보아도 사실을 명료하게 정리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득이 대강 감을 잡아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단서를 얻을 수는 있는 토론인 것 같습니다.

이 토론도 뒤로 갈수록 사실과 자료 보다 주관적 사실과 감정적 공방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어서 끝까지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사실과 자료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 모습이 하도 드물고 귀한 일이라서 한 번쯤 읽어 보자고 추천을 하는 것입니다.

<http://2kim.idomin.com/759>

'김주완 김훤주의 지역에서 본 세상'입니다.

출력하기

- 빠른 메뉴**
- 글로벌네트워크
 - 부산지역위
 - 광주지역위
 - 제주지역위
 - 전북지역위
 - 대구·경북지역위
 - 전남지역위
 - 대전·충남지역위
 - 동호회
 - 봉하 오는 방법
 - 모역 안내



오늘 하루 열지않음

총평 71개

didfks 2009.03.07 09:47

노짱님, 히히히히
정말 감사합니다. 마구 심장이 떨려서 터질거 같아요.

didfks 2009.03.07 09:48

노짱님, 아침에 제가 댓글한거 보셨어요. 저 그렇게 믿고 살립니다.
노짱님, 사랑해요.

현진 2009.03.07 09:48

안녕하세요^^

윈터우면 2009.03.07 09:49

아침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ㅎㅎ

비단장시 2009.03.07 09:49

앗 ~ 아침에 반갑습니다
와아 ㅎㅎㅎ 일단 점찍고 난생침 1등이라고 생각했는데 내마음님 증말빠르다아 ~~~~~

노공님과 함께 하는 이시간 참 행복합니다. 꽃본님 지송여
지도 1등인줄 알았거든요~~

digna 2009.03.07 09:49

헉~~
노짱님이시닷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는지요?
심장이 쿵쿵 쿵쿵 땁니다.

반딧불빛 2009.03.07 09:49

와..^^안녕하세요..로또당첨...노무현대통령님 안녕하세요...실시간에 대통령님께 댓글 처음입니다,학습할수 있는 좋은글 많이 올려
주세요,안 그러시면 저도 투정부릴겁니다,^^^감사합니다,추천합니다,

꽃본 2009.03.07 09:50

3등~안녕하세요?
님 기분좋은 아침입니다.

내마음 2009.03.07 09:50

헉..대통령께서 오늘은 아침일찍 오셨습니다...검색 해봅니다

방송국(테레비국) 사원은 신문기자보다 훨씬 높습니다. 무려 우리 돈으로 2억 2300만 원 정도나 됩니다. 조중동에서 우리나라 방송
국 직원들 임금이 너무 높다며 시비를 걸던데, 일본 방송국에 비하면 절반 정도 되나요

내마음 2009.03.07 09:51

이기 이기 내가 공부는 꼴등이지만 여기 댓글에서는 일등입니다
푸 하하하 이거라도 잘해야쥐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나보다 동작 빠른 사람 있음 나와보라그래 ㅎㅎㅎㅎㅎㅎ

mcsolong 2009.03.07 09:53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허리는 차도가 있으신지요?
대통령님은 항상 건강하셔야 됩니다
감기조차도 우리 국민들은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 홈페이지 자주 뵈 수 있어 그나마 위로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직접 뵈 수 있는 그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바라며...

광복군 2009.03.07 09:54

반갑습니다 민족의 영원한 오직 한분 뿐인 진짜 대통령 멀리서 보나 가까이서 보나 볼수록 흐뭇합니다

현진 2009.03.07 09:54

내마음님..
지가요..시방..
이천 가려고 컵 끄려는데 글이 보이는겁니다..ㅋ
참 이상합니다..ㅋㅋㅋ..
일부러 천천히 댓글인사 드렸어요..
매일 1등하면 돌맞을까봐..ㅋㅋㅋ..
고런줄 아세요..내마음님..^^
모두 즐거운 토욜 보내세요..
난..맛난거 많이 먹고 올랑께..~

didfks 2009.03.07 09:55

내마음님, 나빴어요.
게시판에 노무현 썬 잇기에 얼른 했는데...ㅎㅎㅎㅎ
지가 손이 아직도 독수리라서 그래요.
고개도 아프고.....
잘 보았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물가가 높아서인가도 생각해 보았구요.
아마 구조적인 문제도 잇겠지요. 우린 너무나 많은 임금격차가 학생들의
어깨를 무겁게하는거 같아요.
자식한테 너만은 벡타이를 매라고 강요하니깐요.

마당 2009.03.07 09:56

허걱,,,,!!! ㅎㅎㅎ

내마음 2009.03.07 09:57

내가 80년대 미국에 있을때 은행원들 봉급이 노동자들보다 세배나 적습니다
노동자들이 더 대우를 받는거죠..힘든 육체노동 하는 분들이 더 많이 받는 미국입니다

서울역 2009.03.07 09:57

다녀오겠습니다.노짱님..() 그리고 조중동기자 수준으로는 방송국시험 통과못할껄요..ㅋㅋㅋ

매그놀리아 2009.03.07 09:58

노짱님^^*

내마음 2009.03.07 09:58

나처럼 댓글 일등하려면 자판연습이 필요합니다 ㅎㅎㅎㅎㅎ
독수리나 헬리콥터 타법은 항상 꼴등입니다 ㅎㅎㅎㅎ
나보다 더 빠른 사람 있음 나와보라 그래!!!!!!
움 환하 하 하하

연두랑 2009.03.07 10:00

아침에 노짱님을 뵙다니요.
놀란 마음 두근두근.. 우선 무어라 인사 말씀 올려야 할지 아무런 생각이...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didfks 2009.03.07 10:00

내마음님, 저가 댓글 연습으로 나아지기는했어도, 고개를 위 아래로 움직여야하니...
이쁜 동생한테 한번 양보해주세요지.
내마음님 나뻐어요. ㅋㅋㅋㅋ

서울역 2009.03.07 10:00

저도 좀 치는대요.. 내마음님에 순발력엔 손들었습니다.. ioi ㅋㅋ

digna 2009.03.07 10:02

말로 대화하는 것보다, 글을 주고 받을 때가 더욱 힘들다고 여겨집니다.
얼굴 표정을 서로 보면서, 눈빛을 대하며 대화하는 것도 쉽진 않지만
상대가 보이지 않는 빈 공간에서의 대화를 끌어 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처음엔 이성적으로 시작되다가,
점점 진행이 될수록 이성은 간데없고
처음 시작했던 주제가 희미해지면서 결국엔 감정싸움으로 변해갑니다.
특히 토론이 진행되면 정보 부족이나, 자료부족으로 상대를 이해시키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평상시 꾸준한 공부가 필요하다 봅니다.

차칸늑대 2009.03.07 10:02

깜짝이야~~~(O.O)
대통령님~감사합니다.
추천하신사당,고맙습니다...

비단장시 2009.03.07 10:03

음 내마음님 컴퓨터 의자에서 밀어버리고 싶다 -- --
후다다닥 지송하게도 오늘은 노공님 글 밑에서 뛰내려갑니다.출근요
노공님 오늘도 행복하세요 ~~~ ~~

그리고요 지는요 정치공부가 쟈로오 실허요

진짜로 싶고요 권여사님과 알콩달콩 이야기가 좀 듣고 싶어요 ~~

내마음 2009.03.07 10:04

내 다른건 다 양보해도 댓글 일등에선 절대 양보할 이유가 없습니다
음 훗하하 하하하

원더우먼 2009.03.07 10:11

노공님.. 지금처럼 계속,, 누가 뭐래도,,, 글 올려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이렇게 해 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독수리타들은 들으세요,,,
대통령님께서도 열손가락으로 타이핑 하십니다...
지금부터라도 노력해서서 열손가락으로 타이핑연습 뽀시게 하세요,,,
제가 비서관한테 물었거든요,,, 타이핑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독수리로 했다간,,, 바리 우쨌된다카더라구요,,,

독수리타법으로는 평생 댓글 일등 문합다.. ㅎㅎㅎㅎㅎㅎㅎㅎ

글고,, 노공님... 눈을 갈아야 할 때가 되었지 싶습니다...
설마 농군 비서관 혼자 다 하라고 하시는것은 아니겠지요...
ㅎㅎㅎ

냄비뚜경 2009.03.07 10:17

나의 급여명세서라,일본이 잘하는 것은 저렇게 꼼꼼하게 정리한다는 것은 본받을 만합니다.

내마음 2009.03.07 10:17

원더님이 웬일로 오늘은 진실을 말하십니다 ㅎㅎㅎㅎ
내가 오늘도 일등으로 댓글 달았습니
다 봤나요? 앙 ㅎㅎㅎㅎ

노짱생각 2009.03.07 10:22

노공이산님^^
당신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사람사는 세상`
완전하게 꽃 피울 당신의 닭은풀을 모시는 일에 이곳의 회원님들께서도
하나가 되었으면 합니다^^
꼭, 시민님이 아니어도 노공이산님의 따뜻한 가슴과 사상을 갖고 계신분을
대한민국의 제 18대 대통령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터진후라이 2009.03.07 10:27

왓왓. 아침밥 먹고 컴백 했더니 다녀 가셨네요.
엄마가 나물들을 조물조물 무쳐서 같이 밥 묵자고.ㅋㅋ
비빔밥 먹었어요.
마침..조카가 온다고 하여서
할머니 뚝으로 오만가지 먹거리 다 챙겨두고.

역시..엄마가 짱입니다.
친정오면 게을러 저도 엄마가 봐 주시니 만세 입니다.^^;

전 공부 나중에 할래요.
놀거예요. 지금은.ㅋㅋ
내마음님..음...
와이키키브라더스에 진한 애정을 지니고 계신거 하며.
왕년에 밴드의 한 팀원이셨던거 틀림 없따.
저 구신이죠.ㅋㅋ
딱 걸렸서요..^^

나라사랑님 2009.03.07 10:28

대통령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자주 뵈게 되어서 무엇보다도 기쁩니다.
이제 앞으로 자주 글을 올려 주시려나 봅니다.
늘 가 보고 싶은 큰 산이 있는데 비로소 그 산 밑에 가까이 다가간 것 처럼
뿌듯한 안도감이 드는 토요일입니다.
좋은 토론마당을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즐거찾기에 두고 열공!하겠습니다.

내마음 2009.03.07 10:31

와이키킨 맞는데요 ..밴드는 아닙니다..그때 고3때 밴드 할려구는 했지요 ㅎㅎㅎ 우리반 친구가 히식스 멤버입니다 ㅎㅎ

r길벗 2009.03.07 10:31

대통령님 반갑습니다...
눈썹이 휘날리게 들리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에.내마음님의 댓글일등독재..
눈꼴시러워 못보겠습니다..
누군가 꼭 저지해주시길바라며~~~ ^^

터진후라이 2009.03.07 10:42

뮤직을 좋아라..하는 부분..팔자인거 같아요.
저도 제아들을..실은 제가 감염 시켰어요.
(비상출구)..라는 밴드를 구성해서 홍대에서 즈그들 끼리
공연도 하고 웃기지도 않아요.^^;
기어코..코끼리가 바늘구멍 뚫기 보다 더 힘들다는..
뮤직.파로 진학을 하겠다고..내마음과 그의 친구들 전철을
제 아들이 밟고 있어요.^^;
노공이산님 삼천포 댓글 미안 합니다..그럼 이만.. ㅋ

빨간사과꼬마 2009.03.07 10:48

여기는 부산입니다 ..
어제 시택에 와서는 .. 오늘쯤 봉하마을을
다녀올까 하구요 ...
노통님은 못 뵈겠지만 꿈에그리던 봉하를
직접 보고자 하여
남편님을 꼬셨습니다 ...

추천해 주신 토론마당 고고쟁 ~~~~~

기분이 들떠서 강 ~~~ 콧노래를 멈추지 않습니다 ..

봄햇살 2009.03.07 10:55

봄 - 안도현

제비떼가 날아오면 봄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봄은 남쪽나라에서 온다고
철없이 노래 부르는 사람은

때가 되는 봄은 저절로 온다고
창가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이 들뜬에 나오너라
여기 사는 흙 묻은 손들을 보아라
영차 이기영차
끝끝내 놓치지 않고 움켜쥔
일하는 손들이 끌어당기는
봄을 보아라

* 오늘 이곳은, 아침부터 봄햇살이 반짝반짝 눈이 부시게 내려쬐니다.
울만에 켜 앞에 여유롭게 앉아 노짱님의 올리신 글들을 찬찬히 읽어보는 호사를 부러웁니다.
세상 어디에도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저절로 오는 것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봄도,
우리가 바라는 사람사는 세상도.
이제 봄입니다.
벌써 봄입니다.
모진 겨울 이겨내고 봄이 되어 이렇게 자주 뵈게 되니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오늘도 님에 대한 저의 바램은 단 하나 오직 건강하시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위에 추천해 주신 블로그는 가끔씩 들르는 블로그입니다.
천천히 읽어 봐야겠습니다.

山中나그네 2009.03.07 11:15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자주뵈게되니 영광이 두배 세배로 커집니다,

많은 좋은 말씀 학습자료 정보를 직접주시니 감개무량합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꾸벅...

笑而不答 2009.03.07 11:20

음~~ 즐거운 주말 아침부터 노공님이 숙제를
사람사는세상 전교1등은 누가될라나
혹시 우열만 나누시는건 아니겠죠 음... 찬밥연대형님이 걱정이네

존경하는노무현 2009.03.07 11:24

반대는 뭐밍??~- ㅎㅎ

얼음공주 2009.03.07 11:26

눈비비고 이제 일어나 봤는데...
노공이산님~~ 햇살 따뜻한 하루 되세요~~~*^^*

하늘an바람 2009.03.07 11:54

이렇게 손수 프로그램까지 추천 해주시다니
따뜻하신 마음이 가슴까지 다가 옵니다~~

울빗대 2009.03.07 11:58

이렇게 신명나는 사람사는세상입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늘 강녕하십시오

흙마당 2009.03.07 13:25

잘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일체 주관적 감정을 버리고
사실과 자료에 근거한 토론에 따라 비판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보미니&성우 2009.03.07 15:59

네 잘 보고 오겠습니다 가기전에 댓글 먼저 ㅎㅎㅎ

미네랄밥 2009.03.07 16:26

아고라에도 자주 들러주세요

묵은김치 2009.03.07 16:41

ㅎㅎㅎ 오늘도 어김없이 등장하신 노공이산님
토론의주제까지 주시고 정말 감사할뿐입니다
더욱 열심이 공부해야겠네요 열공모드~~~

돈나무 2009.03.07 16:45

노짱님의 글을 자꾸보니 이제 모습도 보고싶은 욕심이 슬며시 드네요^^ 요즘 건강히 잘 계신다는 의미로다가 여사님과 함께 찍은
사진한장 올려주심 안될까요? 앞으로 참여사진관부터 볼게요~~히히

수니서니 2009.03.07 17:08

소중한 자료이네요.
노공님께서 이런 자료까지 다 찾아서 꼼꼼히 챙기시다니 놀랐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로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 예산을 대폭 줄이면서
부자들의 세금은 깎아주다 못해 이자까지 쳐서 돌려주고

또한 일자리 나누자는 허둘럼으로 신입사원의 월급은 깎으려는 사악한 저들에게 치가 떨립니다.

가행수 2009.03.07 17:40

감사합니다..^^

내서사람 2009.03.07 20:09

대통령님 한달에 한번이라도 추천도서도 올려주세요.
열공하겠습니다^^*

항상노력하자 2009.03.07 20:56

노짱님 ...
글 잘 읽고 갑니다.
꾸벅^^

참다운세상 2009.03.07 21:33

말씀하신 글 잘 봤습니다.
아래 댓글들의 공방이 말씀하신대로 토론을 보는 듯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시 건강하십시오

.^^

산마다강 2009.03.07 21:58

감사합니다.....우리 나라 통계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방송 통계치를 보면, 당노병 몇%, 무승압, 각종암 몇%, 난치병% 등등 대략 잡아 다 더해보면 대한민국에 멸절할 사람 없고 환자수두 오버(국민수) 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꾸벅

충청도 아줌니 2009.03.07 22:33

글 잘 읽었습니다, ()꾸벅()노무현 전대통령님 글을 읽으니 함께 있는듯 합니다. 오늘밤 다 읽었어요 ㅎㅎ~권양숙 여사님하고 편안받 되세요 ㅎㅎ~

헤스티아 2009.03.07 22:48

읽어볼려다 스쳐 지났었는데 다시 찾아가 봐야겠네요
고맙습니다 노짱님
그리고 사랑해요

똥똥이 2009.03.07 23:07

소개해 주신글 찾아가 읽어보았습니다.
제겐 아직 어렵고 낯설지만 천천히 가르쳐 주신다면
마음 깊이 새기며 천천히 행동에 옮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살아가며 존경합니다.^^

소박한 들꽃 2009.03.08 00:09

사람사는 세상 사랑을 많이 했습니다
대통령님도 출연하신다고 ...

푸른소나무@ 2009.03.08 01:17

매일 대통령님이 글이 기다려집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님^^

나름노사모 2009.03.08 01:51

변개처럼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시는 건 아니시죠?
이 방에 들어오시면 적어도 목록에서 몇개의 글 정도는 제목이나 추천수를 보시고 노짱님도 보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 댓글을 달아주시는 센스~!로 회원님들을 놀라게 하시는 거겠죠.
깊은 밤입니다. 낮에 불일이 많아 여기 저기 돌아다니다 12시가 다 되어 들어와서 예서 경비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대통령님.

토르(블루핑크) 2009.03.08 10:35

노공이산님
오늘은 코~하고 내일 일어나서 읽어보겠습니다.
노공이산님 항상 공부하시는 모습... 존경합니다.*^^*

[2007.3.8]

노공이산님께서 추천해 주신 블로그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글을 읽고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공이산님께서 본문에서도 밝히셨다싶이 토론 문화에 대한님의 생각을 접할 수 있는 블로그였습니다.

명백한 사실을 바탕으로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펼치자는 노공이산님의 주장과 그 구체적 방법들 중 하나의 예를 보여준 블러 그가 아니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노공이산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토론문화의 한 방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digna 2009.03.09 23:38

노짱님께서 다음엔 어떤 주제를 주실 지
설레이며 기다립니다.

시인의노래 2009.03.10 09:12

건강하세요.

조동관 2009.03.10 18:12

또 다녀가셨군요~~~아무리 바쁘더라도 추천하신곳 꼭꼭 다녀가겠습니다.감사합니다~~

봉화택입니다 2009.05.26 17:23

내 고향이 봉화라 봉하랑 비슷해서 더 정감가고 고향같고 해서 꼭 한번 가야지 했는데 이제 안계시니 그립습니다.돌아가시고 나서 야 다녀왔습니다.당일밤 늦게..많은 생각을 하고 맘을 비우고 대통령님처럼 살다가 갈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지도록 노력해볼려구요. 매일매일이 슬픈날이네요.

잊지않을께요02 2009.05.29 21:49

가슴속에서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환생 2009.05.31 23:04

글쓴이 "노무현"이라는 이름만봐도 눈물이 납니다.
대통령님!죄송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여사님 보살펴주세요!

성터 2009.06.02 03:20

살아 생전 노짱님의 피끓는 대선 출마 연설을 다시 보며 또 눈물 흘립니다.
3년반 남았습니다. 잊지 맙시다.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53&articleId=38354>

에머랄드 2009.06.03 17:24

마음을 모읍시다~!! 뜻이있는곳엔 반드시 길이 있더라구요

무지개노랑색 2009.06.06 11:28

누구나 옆에 있을때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 갑니다..당연히라고만 생각하며 헤어짐을 모르고 살다 이렇게 노짱님을 보내고 하루하루가 온세상이 어둡게만 보여 집니다.TTT그립습니다...그리고 보고싶습니다...항상 선한 미소를 짓던 노짱님이 뇌리에 떠나질 않습니다. 하늘에 뗏던 무지개처럼 어디선가 행복한 미소 지며 이나라를 지켜 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TTT

은혜동국맘 2009.06.19 16:58

슬픔...

흔필쓰기

등록

목록

| NO | 제목 | 조회 | 글쓴이 | 등록일 |
|-----|---|--------|-----|------------|
| 38 | [진보주의 글] 이렇게 가보면 어떨까요? (2009.4.7 노무현) (36) | 27325 | 운영자 | 2009.07.22 |
| 37 | [진보주의 글] 줄거리 4차 초안입니다. 이 마당에서 토론을 해봅시다 (2009.3.20 노무현) (8) | 4534 | 운영자 | 2009.07.22 |
| 36 | [진보주의 글] 전체 줄거리 제3차 초안입니다. 토론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2009.2.8 노무현) (6) | 2945 | 운영자 | 2009.07.22 |
| 35 | [진보주의 글] 전체 줄거리 구성에 관하여 2차 초안 (2009.1.27 노무현) (4) | 2706 | 운영자 | 2009.07.22 |
| 34 | [진보주의 글] 전체 줄거리 구성 1차 초안입니다 (2009.1.23 노무현) (27) | 13715 | 운영자 | 2009.07.22 |
| 33 | '사람세상' 홈페이지를 달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1392) | 387868 | 노무현 | 2009.04.22 |
| 32 | 저의 집 안뜰을 돌려주세요 (1056) | 289429 | 노무현 | 2009.04.21 |
| 31 | 강 금원이라는 사람 (1522) | 354982 | 노무현 | 2009.04.17 |
| 30 | 부탁드립니다 (971) | 157178 | 노무현 | 2009.04.08 |
| 29 | 사과드립니다. (1246) | 186147 | 노무현 | 2009.04.07 |
| 28 | 좋은 글 하나 추천 드립니다. (122) | 130872 | 노무현 | 2009.03.19 |
| 27 | G20 재무장관회의 기사를 보고 (97) | 56636 | 노무현 | 2009.03.15 |
| 26 | 상대주의와 보편적 가치 (107) | 26086 | 노무현 | 2009.03.13 |
| 25 |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가 무엇인가요? (83) | 30610 | 노무현 | 2009.03.12 |
| 현재글 | 토론마당 하나 소개합니다. (71) | 26684 | 노무현 | 2009.03.07 |
| 23 | 관용의 한계는 누가 설정하는가? (83) | 16587 | 노무현 | 2009.03.06 |
| 22 | 관용은 용서와 다릅니다. (164) | 52302 | 노무현 | 2009.03.05 |
| 21 | 연속극 끝났는데... (271) | 119268 | 노무현 | 2009.03.05 |
| 20 | 정치하지 마라. (275) | 109605 | 노무현 | 2009.03.04 |
| 19 | 민주주의와 관용과 상대주의 (192) | 28455 | 노무현 | 2009.03.01 |